투명한 엔진커버

(행11:19~30)

19.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투명한 엔진커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투명한 엔진커버'

여러분, 이태리의 수퍼카만을 제작하는 자동차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태리어로 정식 명칭을 말하자면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라는 회사입니다.

이 람보르기니라는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액센트나 엘란트라, 크게 잡아서 그랜저나 에쿠스 같은 이런 차는 안 만듭니다.

말 그대로 수퍼카에요, 수퍼카를 만들어서 이름들을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람보르기니 베네노'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차들 중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라는 차가 있어요.
이 차는 700마력이 넘는 차에요, 보통 차들이 마력수가 많으면 300마력 그렇습니다.
출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에 3초가 안 걸립니다.
최고속도가 시속 350Km,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의 값이 우리 돈으로 6억입니다.
아하! 비현실적이지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차가 상용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차를 향해서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자동차에 대해서 얼굴을 얘기할 때는 프런트(front)를 말해요, 앞부분이 자동차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는 뒷모습이 자동차 앞모습 못지않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주된 얼굴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게 뒷모습이 멋진데, 이 멋진 뒷모습의 핵심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투명커버로 덮여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투명커버는 유리가 아닌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건데 그 투명한 것 속에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보통은 엔진이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있다고 해도 불투명한 보닛으로 덮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닛이 투명한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밖에서도 엔진이 보입니다.
신비하다고 할 때는 감추어진 것을 말하는데, 저는 이 자동차를 인터넷을 통해 사진으로 보면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이 신비한 거예요. 아, 특이하지요?
700이 넘는 마력수를 자랑하는,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제로100이라고 해요, 제로백이 3초 이내인 최고속도 350Km가 가능한 이 강력한 엔진을, 사실 생각해보면 감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차의 자부심인데, 긍지의 근거가 되는데.
보일 수만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차 타게 되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 눈을 의식할 때 괜히 겉모양만 보여줄 게 아니라,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하는 엔진이 보여질 수 있다면 아, 얼마나 좋아요? 생각을 참 잘했다고 봅니다.
이왕에 6억을 들여서 차를 타고,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차를 몰고 다닐 바에는 그 기가 막힌 엔진이 보이면 더 좋지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엔진부분에 해당되는 게 사람의 심장입니다.
이 육체에도 엔진인 심장이 있고,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사람에게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체의 심장이 사람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 되어준다면, 똑같이 영어로 heart라고 표현되는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인격성의 다이내믹을 부여하는 엔진입니다.
인격성이라는 게 뭡니까?
언어, 생각, 그리고 감정, 의지, 이런 게 다 인격성 안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인격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이 마음이라는 엔진을 통해서 다이내믹을 부여받습니다, 역동성을 부여받아요.
그런데 이 심장, 쉽게 말해서 속마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앞에서 너무너무 온순한 부장님, 그래서 부하직원들이 볼 때 '우리 부장님은 참 온유하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보이지 않는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월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속마음은 사장님에게 꿀밤을 매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월급 받는 것 때문에 그저 그 앞에서 네네, 겸손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밑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굽신굽신 거리니까.
이렇게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참 기쁘고 반가운 일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신비한 게 있어요.
본문에 나온 대로 안디옥 교회가 왜 생겼느냐?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 때문에 다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이젠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해서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교회 안으로 대거 영입되게 돼서 교회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교회 박해를 할 때, 그 박해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박해의 선봉에 서서 박해했기 때문에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몰려왔고, 안디옥까지 쫓겨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이 회심해서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이 다 기독교 세계가 됩니다.
근데 그 바울이 3차의 전도여행을 하기 위한 선교 전초기지가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박해해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그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일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건 그렇고, 왜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의 소유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신을 갖고 '이것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힌트가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26절 마지막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안디옥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바나바가 와서 가르친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 대단한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얘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이 말이 재미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안디옥에 온 바나바와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데려온 사울이 가르친 내용의 핵심이고 총화인데, '굳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떼시스'입니다.
이 '프로떼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굳건한'이라는 형용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굳건함’ 즉, ‘마음의 굳건함’이에요.
마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주께 붙어있으라는 뜻인데, 이 ‘굳건함’이라는 말의 본래 뜻이 뭐냐 하면 ‘진열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 보이도록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사람들이 보도록 진열하라!’는 뜻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전시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있으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쫓겨 온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지금 집도 절도 없고 먹고살 길이 막막한데도, 항상 이 사람들의 결론은 예수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대화의 결론은 예수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헬라인 안디옥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봐, 당신이 지금 먹고살 길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먹고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그리스도만 있으면 배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당신이 지금 머물 집이 없다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면 돼! 나는 예수님 품안에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볼 때, 이 사람의 인격성을 살아있게 하는 엔진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있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가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했대요, 그리고 승천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그리스도에게로 다 가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사업하기에 바쁩니다, 먹고살기에 바빠요,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어서 마음이 사업에 가있고 가정에 가있는데, 이 사람들은 집도 사업체도 없고 먹고살 길도 없고 막막한데, 대화를 해보면 항상 마음이 예수님께 가있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다 가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데, 어디에 가있나 봤더니 항상 예수님에게 가있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바로 바나바가 가르친 대로 한 거예요.
‘굳건한 마음’

굳건하다는 게,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항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이 가 붙어있는 겁니다.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달라붙어 있는 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속마음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보인다는 게, 왜 보였겠습니까?
내 마음은 사업하기에 바빠서 사업에 가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업장에 와있고 먹고살기 위해서 움직이면서도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가있으니까, 비교되니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우린 이런 말을 합니다.
재계인사, 재계인사가 뭡니까? 돈의 흐름에 마음이 늘 가서 붙어있는 사람이 재계인사에요.
또, 법조계인사가 있습니다, 항상 법의 집행에 대해서 연구하고 법의 집행에 마음이 가있는 사람이 법조계인사입니다.
학계인사가 있어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항상 마음이 연구에 몰두되어 있고 마음이 연구에 가있는 사람을 학계인사라고 얘기합니다.
연예계, 예술계통의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항상 창조 작업에 가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있는 게 아닙니다.
재계인사들 틈에서, 법조계인사들 틈에서, 연예계인사들 틈에서, 학계인사들 틈에서, 학계인사들이 연구에 마음이 가있을 때, 법조계인사들이 법의 집행문제에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 재계인사들이 돈의 흐름에 마음이 다 가서 머물러 있을 때, 그 장소에서 예수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붙이는 겁니다.
법조계에서 결론을 예수께로 끌어가고, 재계에서 결론을 예수께로 끌어가는 겁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했으면 승진 자체가 기쁘든 말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승진했다는 소리 듣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승진으로부터 마음을 떼 내서 그리스도에게 머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머뭅니다.
승진을 못했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근데 승진 못했다는 사실에서 마음을 떼어내서 그리스도

에게 가서 머뭅니다.
돈을 벌어도 그리스도에 머물고, 돈이 안 벌려도 그리스도에게 머물고, 성공해도 그리스도에게 머물고, 성공 못해도 그리스도에게 머뭅니다.
실패해도 성공해도, 실패에 마음이 붙지 않고 성공에 마음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그 근동지방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디옥교회가 예루살렘교회에 구제를 합니다.
무얼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재계에서 돈의 흐름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 마음을 언제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어있어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형편이 될 거라는 얘기에요.
법조계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항상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굳이 내가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마음이 붙어있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항상 주님께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마음이 달라붙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억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사람들이 다 보이는 투명한 커버로 마음을 씌워서, 내 마음의 움직임이 다 보이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이 그 현장에서 주가 되는 테마에 가서 붙지 말고, 주께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재계에서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법조계에서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예술계에서도 연예계에서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현장에서 언제나 마음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다, 이 법조계에서, 이 재계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일평생의 일이 뭐냐 하면, 법조계에 있어도 어떻게 법조계 안에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것인가, 교회에서 붙어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붙어있는 게 아니라, 재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것인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연예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붙어있을까, 이것만을 과제로 삼는 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붙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재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계에 속해서 살고 있는 나에게 해야 될 말이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법조계에 속해 살고 있는 나를 향해 해야 될 말인 것입니다.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으라!
이게 바로 투명한 엔진커버를 달고 있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같은 자동차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때 아마 정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와 같은 강력한 엔진, 강력한 파워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투명한 엔진커버를 달고 사는 투명한 마음이 비쳐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라는 자동차의 엔진이 투명한 커버를 통해 비치듯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